

여성학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  
자 료 집



이제야 시작하는 노외대학 설립을 위하여 열차 탑승하다.

일시 ; 조국분란 4학년 5월 17일 오전 12시

장소 ; 연극대 209호

주최 ; 연극대 여학생회



# 여성학회 건설을 위한 뜻깊은 자료집



이제야 시작하는 노래라는 걸대를 생각하고 실지 않습니다.

일시 ; 조구분관 4학년 5월 17일 오전 12시

장소 ; 인문대 209호

주최 ; 인문대 여학생회

## 우리들의 사랑법

우리들 만남곳

뜨거운 갈망의 땅

너무도 긴 세월 그리움에

목마른 날들

동천에 새처럼 혹은 이슬처럼

우리들 사랑은 어둠속에 피어난 꽃

아직도 진정한 평화는 없어도

내일의승리를 확신하며 맞잡은 손

길가의 들처럼 혹은 들풀처럼

우리들 사랑은 어둠속에 피어난 꽃

하여 모진 비바람속에도 새로 열리는 땅에

마침내 새벽을 피우는 민주의 꽃을 위하여

하여 모진 비바람 속에도 새로 열리는 땅에

마침내 새벽을 피우는 민족의 꽃이여.

여학생회의 온바를 거리매김을 <sup>기록히</sup> 나사매

인문대 여학생회장 장영숙

광주대총학생회장이 되는,

이 철규 학생의 구체적인 주동이 청년학도의 투쟁을 부르는,  
이 모임은 그대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단체나 풍양을 격파하라 해방 광주의!'

광주에서 대거적인 대항쟁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농민을 흥취하는 시민도 우리의 등장에 무척별 땀·우슬·고자를  
던지는 시민도 있었다.

당원들에게는 아직도 백기 문들여지지 못한 원후이.

단체장, 기관장, 광주 시내에는 수월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광주학생회 비리 청문회 노태우를 대대검거!'

시내에는 대형 모금함이 있었다.

'비밀의 문으로 오월제를 준비하다' '5.18 기념 연극제' '5.18 기념당' ...

광주의 각 대학에는 수월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우여! 그대는 수월을 무슨 품에 품어 있는가?'

이제 수월은 복현이도 복현 여학생들의 가슴에 되살아나야 한다.

그러하기에 학우여!

— 수월에는 간절한 무차림으로 대답하라.

— 바사다 운동하리 —



# 토론회를 준비하다

홍남부장 박연동

많이 힘들었다.

준비모임은 나날 종산경부터 건설되었었다. 주체는 인문대내에 건설되어 있는 여성학 연구모임 (정확히 '나는나', 인문대 '여연')에서 내어왔다. 현장 가까이 모임을 가져왔었지만 올바르게 준비모임으로 자리매김하기 못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개별 주체들의 개인적인 열의도 있지만, 그보다 나날을 두재 일정 속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작업인가 라는 의구심이었다. 또 그러한 의구심에 동변하여 두체들의 단대내의 그리고 과내에서의 부여된 임무가 막중하기에 더더욱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쩔수없게나마 준비를 했다.

낙만저 부단 조국에서 언제 두재가 없는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재 일정 속에서 토론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학원내에서 또 하나의 구원인 여학생들에 대한 책임 회피한 생각이 들며, 여학생들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내는 억압, 그리고 그것을 온순, 침묵시키는 사회구조,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은 현사회에 그들에게 아닌 우리들 자신에게 가장 절실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토론회 준비에서 기층 민중 여성들의 냉담과 소극한 정도가 그 정도. 현명들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 문제일까. 계층의 도처일까?

여성문제라는 것이 여성만이 인식하고 건설하고 두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 맥락과 함께 인식해 여성들 스스로 억압받는 계층의 일부로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체 변혁운동에 기여해야함을 먼저 알아야 ...

변혁 운동에 두재 문제 !! 여성해방 인간해방 문제 !!

## 문제 제기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배관념은 소위 '여성다운'이라는 단어로서 정형화되었다.

여성은 마치 발전도 모르는 채, 시공을 초월한 영원히 똑같은 하나의 현모양처상으로 주물화되어왔다. 남녀의 지위는 본래 남녀가 담당할 역할에 의해 규정받는다.

이러한 남녀의 역할은 남녀의 기질에 기인한다고 주로 생각한다.

남성은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어져 왔다. 그리하여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남녀성별역할이 구분되었고, 이것으로 여성의 우열의 가치가 설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남아존중의 관념과 관습속에서 태어난 여성은 어릴때부터 '여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요구받는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제도교육을 통해 강조되는데 그속에서 여성은 수동적이고 비지성적이며 유약한 여성으로 자기를 익힌다. 혹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여성문제의 근원은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외형화되는 자신의 남성적인 외모나 행동거지로서 개인적 초월을 꾀한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해소를 여성전체의 해방으로 착각하는 것은 결국 모든 계급, 계층의 여성들의 노력으로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져 전체사회속에 확산되고, 민족민주운동으로 자리잡아 나가는데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이 먼저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여성해방을 주장해야겠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념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현사회속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개개인들이 자신이 느끼는 부



분은 소모임을 결성하여 문제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연구고민하며 단결된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여성조직이 요구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자.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남성또한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사회구조가 어떠한 문화양식을 가지고 사회전반을 지배하면서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지, 근본적으로 그러한 불평등구조를 은폐시키는 사회제도인 관련시켜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 문화와 대중매체, 그리고 법제도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껏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사회로 진출하기까지 우리는 일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왔고 그 교육의 토대위에서 사회생활을 이끌어간다.

이때 그 교육내용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나 지배세력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전반적으로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생산하거나 조작하는 지배세력은 자신의 존재유지와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교육을 통해 전수시키 나간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어느부분 받아왔던 교육내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 구조까지도 지배세력의 이해와 관련되어서 그들의 요구에 맞게 왜곡되고 깎여진, 어느 한부분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버려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진실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느끼

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세력과 연관된 교육내용이 여성이라는 부분에서 강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양성적 - 여성과 남성 - 인 상태의 조화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된 여성상과 남성상만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래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다 발휘하는 창조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형을 만드는 성차별교육을 시켜왔다. 남학생에게는 '쌩쌩하다', '능동적이다'는 것을, 여학생에게는 '순종한다', '조용하다', '수동적이다'는 것을 교육함으로써 남녀각각을 조화로운 양성인간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을 강화한 절름발이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 무늬사회의 실정이다.

또한, 역할부분에서도 가사노동에 적합한 지식을, 남학생에게는 사회적 노동에 필요한 기술, 농업, 공업등을 체득시켜서 전통적인 성별노동분업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유교문화권속에서 현모양처상으로 고정화되었다. 현모양처는 한국명사에서 여성에게 최고의 미생관과 가치관으로 규정되었고, 이런 교차관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고정된 여성상으로 인해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여성의 모습을 마치 전통에 대한 이단으로 느끼게 되었다. 현모양처상은 여성에게 무한한 희생과 봉사·순종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성에 대한 편협된 관념과 사회구조적인 제 요소는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왜곡된 여성상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은 방해하고 사회속에서 격리된 존재로서 여성을 묶어두고 있다.

더욱이 여성 스스로의 구체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채 서구의 피상적인 서만능주의가 여성해방과 동의어로 수입되어 여성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단면으로서의 각종 미인대회,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들은 여성의 성이 사회적으로 이동당하는 왜곡형태이다.

또한, 아직 전근대적 차원의 성차별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가족법등은 여성이 처한 불평등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는데 제도적 촉매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좋아하는 취업의 문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는, 한 모인으로 되며 취업여성의 경우 고용상의 차별대우, 가사노동에의 이중부담등도 여성의 성적억압을 표면화 해 놓은 단적인 실례이다.

산업사회에 의한 문화의 퇴폐현상은 여성을 성적대상물로서 취급하였고 여성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의식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지대한 조작효과를 가지는 것이 TV, 영화, 여성잡지등이라 한다면 이러한 문화작품이나 대중매체에 의한 여성의 상품화는 더욱 심각하다.

서적이나 광고를 보면, 기업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여성을 팔고 있는 상태이다.

즉, 여성의 신체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만을 강조, 집중시켜, 마치 여성이 곧 신체의 그 부위인양 착각하게 만든다.

여성도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물건화되고 있고, 광고를 통해

조작된 여성상은 성적매병만을 돋보이게 하는 여성을 창출한다.  
 70년대부터 영화계의 주류를 이루는 호스텔스류의 영화는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외설이나 변태적인 장면으로 내용성없는 부분만을 강조한다.  
 대중매체가 유포시키는 허구적 미의식과 소외된 성욕에 영향받은 남성은  
 절인격적 만남이 아닌 소외된 인간관계로 남성을 몰아내고 있다.  
도피처로의 사랑, 신비화된 여성상, 가부장적 편견은 남성중심의 우리사  
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  
에 주입되어 그러한 모습을 대로는 실질적으로 재생산하게끔 한다.  
 여성으로 하여금 피지배로서의 자기인식을 보지 못하고 사랑, 만성, 순결등  
 의 개념을 빌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은폐시켜 온 가부장제 교육이  
 나 문항들은 자신의 억압상황을 사회전체구조속에서 파악해내지 못하고  
 남자와의 갈등관계로만 여기거나 개별적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가부장제를 이용한 지배계급에 의해 고착·심화되어온 여성문화는 정당한  
 고 주장된 인간의 삶으로서 자체의 창조력과 비판력을 상실한 복종인  
 내의 순종적 여성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대중문화의 프로그램들이 또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윤추구를 그 본질로  
 하여 자본주의적 인간소외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본주의 사회의 범역시 이윤추구를 위한 계급관계의 고정과 여성에  
 대한 남녀차별의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대마다 법은 황태를 달리 하지만 차별적 계급관계의 규정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남성지배사회, 상층사회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형제법중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법적지위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① 남녀평등 계승을 위한 호주제도 (제 778-799 및



제980조 - 996), 가(家)를 대표하는 직계비속 장남자: 즉 장남이 혼주가 된다. ② 혼인법상의 남녀 차별 (제 826조 이하), 혼인함으로써 처음 원칙적으로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여 그 가족이 되며, 부부는 각각 부계 혈족의 성을 혼인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③ 친자법상의 성차별 (제 181조 이하),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에 입적한다. 입부혼의 경우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④ 이혼법상의 여성의 불기함 (제 384 이하), 이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양육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혼과 동시에 모권이 박탈되고, 이혼한 생모는 자기자녀에 대해 계모보다 이차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것으로 된다. ⑤ 재산 상속법상의 남녀 차별 (제 1000조 이하), 상속누위, 상속분에서의 차별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닮고 있는 헌법이 오히려 법률의 차별적, 명문규정, 애매하고 형식적인 법규정의 운영, 부당한 법적용등을 통해 여성에게 의존적 풍습을 강요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 스스로 피억압자임을 깨닫게 하고, 주체로서 서 억압자에 대항하는 원초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속에 나타나는 왜곡된 양상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이와 더불어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올바른 모습을 꾸준히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여성진공의 삶, 여성진공의 문화, 법규정을 타파되고, 남녀 모두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문화적 삶이 형성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히는 것으로 학회는 다양한 학문적인 요구를 가능한 한 모두 수렴해 내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관계한 모든 민임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소규모 스터디모임을 총화시켜 내며 순발력있게 학생대중의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조응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환경적 배려와 지원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학회의 주요임무다.

# 각시대 별 여성의 지위와 역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가부장제 가족과 국가라는 계급차별 및 성차별 조직 하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분석 가능하다. 이러한 가족과 국가는 생산양식에 필연적 조응을 하게 되므로 각시대별 경제적 사회구조 하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 가. 원시공산제와 여성

먼저, 전 자본주의하의 여성 중 원시공산제와 여성을 살펴 보도록 하자.

원시공산제의 생산력과 그에 조응한 생산관계는 단순 협업적 공동 생산과 공동체적 사회관계 즉 공동소유였으며, 이 시기는 자생산성 단계로서 경제적 잉여와 그에 동반하는 사적소유가 없는 만큼, 잉여생산물을 사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는 계급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계급 사회라고도 하며, 사회의 하부구조가 이러한 만큼 다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혼인형태의 변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자.

오랜 역사의 진화과정을 통해 인간은 태어났으며, 아주 원시적이었을 때의 인간은 무차별적 성교를 하였던 난혼의 시기가 있었다. 물론 이대는 가족형태가 없었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또한 전혀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혈연집단의 제1단계로서 이전의 무규율적 성교에서 세대별로 제한하여 세대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형태가 생겨나게 된다. 이 시기는 수렵과 어로 및 채취가 노동의 전부인 자취어로의 단계였고, 대체로 협업에 의존하여 자연물을 수렵하였으며, 남성은 수렵과 같은 활동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식물채집 등의 비교적 덜 활동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분업이 나타났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분업은 출애굽 이전의 난혼시대에 있어서 여성이 지극적으로 임신상태였을 것 이므로 이를 인해 여성은 비활동적인 노동을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라 하겠다. 남성과 여성의 성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분업이 역사적으로 강제화 된 결과였을 것이다.

자연을 획득과 병행하여 농림이 시작되면서 농림이라는 능동적인 자연이용으로 생활수단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마침내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혈족의 유대가 강화되어 시초가 발생한다. 이 가족 시에는 농림으로 경지를 늘리려는 새로운 토지 요구가 생기고, 또 부유하는 인구를 분할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혼인형태는 형제자매의 가까운 친족간에는 성가 금지되는 혼인형태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혼인형태인 푸날루아혼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푸날루아혼 시에는 이전에 비해 생산단위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단위 소유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만해도 오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혈통을 어머니에 의해 구분하는 모계제 사회였다.

모계사회는 인류사상 매우 마개한 단계에 우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위해서 공동목축이 행해졌다.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 즉, 목축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혼인형태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푸날루아혼에서 대우혼으로 이행하여, 이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노동의 분업이후로 최초의 사회적분업인 목축이 등장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목축을 담당할 주체였던 남성이 본격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등장하였고 남성에 의한 재부의 증대는 그가 자신이 소유한 생산단위 등을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점차적으로 모권제는 타파되었고, 새로운 혼인형태인 대우혼으로 가부장적 세대공동체가 등장하여 부권제가 모권제를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대우혼 시기의 혼인형태의 내용은 푸날루아혼에 비교하여 혼인대상의 범주는 변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의식이 확연하게 나타났고 동기간 중에 볼처다 낚남툼이 있었다. 그러나 남녀 어느쪽에 의해서건 이혼은 자유로웠고, 볼처 이후에도 자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만 속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목축으로 인한 생산력 발전에 수반된 부의 증대에 따른 상속목구를 인해 정해진 여자와 동거하여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확인하기 위해 동기간 동안 여자의 경리가 엄격히 요구되었다. 반면 남성들은 성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성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결국 동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일부다처제였던 셈이다.

결기의 발명과 사용으로 수공업이 농업에서 분리됨으로 인해 또 한번의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조응하여 이전의 생산단위였던 가부장제 시대 공동체가 기능을 상실하여 갔다. 즉 경지상속에 의해 가족적·개별화된 소규모 개별 경영 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가족형태의 변화를 일으켰고 여기에서 일부일처제 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가족형태는 남성자배원을 기점으로 재산상속을 위하여 부대의 결혼이 확실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원시적인 공유제에 대한 사유재산의 승리에서 결과된 최초의 가족형태이다.

그러나 남자의 직사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 여자의 정조를 강요하는 일부일처제는 그 이면에 직업적 매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정조를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의 상품화를 강요하는 이중적 자기 분열적 남·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사적 소유는 재산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재산의 불평등은 노예제도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 사적 소유로 부려 사악된 계급사회는 노동에 있어서 라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제도와 성에 있어서 자기분열적인 호인형태 즉, 형식적 일부일처제와 매춘을 공존시키며, 이는 지배 계급의 부의 확대와 계승, 향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라하여 계급사회는 열리게 되는 것이다.

## 나. 고대 노예제 생산양식과 여성

고대 노예제 생산양식과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대에는 농업 공동체 후기에 이르러서 대가족이 소가족으로 분화되어 소경영적 생산양식이 성립한 이데 대응하는 자유소토자가 발생하고 사적 토지소유가 요청됨으로써 원시공동체는 해체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는 유력자에게 집중되어 대타지를 소유한 귀족계급과 토지를 상실한 노예, 두 계급이 발생한다.

이 시대의 생산관계는 토지소유자나 소가족의 가부장이 토지와 함께 생산수단의 하나로서 이들을 원천 소유하는 전인적적 예속이 그 기본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 시대는 노예 소유주가 노예대중을 호사하여 생산한 전인적 생산물을 수탈하는 것이 기본적 경제법칙이다. 이러한 노동의 존재 형태인 노예노동 노예와 성노예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노예노예는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노동을 하는 노예이며, 성노예는 노예소유주의 상속을 위해 정조

요구되거나 가사노동이 주어지는 신분적 노예다. 노예소유자의 향락의 대상인 유곽에 있는 창부적 노예 두가지가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개개의 특별한 방인 소위 '귀방'에서 거주하였으며 이는 그집을 방문하는 다른 남자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격리되어 지는 것이다. 이때는 부덕(婦德)이 고취되었는데 부덕은 첫째 정조이고 부정의 죄 즉 간통죄는 가장 큰 죄로서 슬론(B.C 6<sup>o</sup>)의 법률에 의해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며, 제1의 처분권은 아내의 소유자인 남편이 가지므로 남편들은 스스로 살해하거나 노예로 팔아 아들을 낳기도 한다.

한편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장동 상속인의 출산을 위하여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엄격한 절제를 요구했지만 스스로는 자제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대문제도가 생겼고 그 예로는 슬론이 B.C 6<sup>o</sup>경 공장제도를 창설했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

## 다. 봉건제 생산양식과 여성

최초로 등장한 계급사회인 노예제 사회는 자연경제의 재생성 아래, 노예의 육체노동을 기본적인 생산력으로 했고, 또 장백전쟁에서의 인간수렵과 같은 경제외적인 노예 확보와 노예노동의 전 잉여를 수탈하는 노예제 재생산의 모순으로 더 이상 잉여를 산출하지 못하고 스스로 쇠퇴하여 갔다.

그러하여 보다 우월한 생산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가 시작되는데 이는 장원이라 불리는 영토를 영주가 장악하고, 소농민이 농노화되어 이 영토를 빌려 쓰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노동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노예제에 비해 보다 완화된 신분적 예속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농노제 생산관계의 본질은 토지에 긴박된 농노의 지대 공납형태에 의해 영적으로 드러나는데, 스스로가 유상계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적 근거로서의 소경영을 바탕으로 한다. 지대의 변화는 노동지대(부역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로 나아가며 이 최후단계에서는 이미 봉건 영주-농노의 관계가 해소되어 순 계약적인 자본제적 소유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봉건제 생산양식(소경영)에 조응한 가족형태를 살펴보자.

노예제의 경제적 기초가 개별인간(노예)인 것과는 달리 개별가족이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적소유가 한단계 전진되어 남편(영주와 농노)을 중심으로 한 부권 일처제 가족을 이룬다.

그렇다면 농간제 생산양식에서의 계층별 가족과 가족내의 양성관계 즉 여성의 역할의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영주가정에서의 여성을 살펴보면 영주가족의 부와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장원의 재산 관리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담당해야 했으므로 귀족의 아내가 참여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다른 계급의 여성과 차이가 있다면 육체적인 일에 보다 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귀족여성들이 지참금 때문에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능력이나 용감성, 가사에 있어서의 노련함은 남편의 재산을 간수하는데 큰 몫을 해낼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영주가족의 부권 일처제 가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처의 재산은 남편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며 무산자와 다름없이 언제라도 몰수 될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농민가정과 여성을 살펴보면 농민의 아내는 농민과 같이 영주의 농노였다.

여러 농노부부는 함께 토지에 간박되어 경제 외적 강제가 행해졌다. 이 가정도 역시 단순 가족의 소가정이며 남성중심의 부권일처제 가족이었다. 따라서 영주나 장원내에서 그의 처를 압박하는 것과 같이 농민도 처와 자식을 지배하였으며 영주가 사소한 일로 그의 처를 승원에 가두고 지참한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이 농민도 그의 처를 때리고 집에서 내쫓는 일이 가능했다. 한편 영주의 신하라 농노에 대한 무제한적 지배권은 그의 여자농노와 하인을 성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인케 했다.

그러나 농민가정은 생존을 위해 남녀 상호의존적이었다. 가족사육이나 돌일이 여성의 일로 역할분담 되었으며 이러한 생산노동의 참가는 남편의 성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정 내에서 생산의 주체자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

수공업과 상인의 가정에 있어서도 노동의 성별이 다를 뿐 자영업만 가정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일치하고 있다. 이들 가정 역시 조파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가족이 생산과정에 참여 하였다. 수공업자, 상인의 가정에서도 아내는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부분 이었고 경험자로 참가하는 그들의 권위는 매우 막강한 것이어서 과부가 되도 남편의 권리, 특권 채무를 인계 받았다.

특히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는 여성 전문가도 다수였는데 프랑스, 아테리, 영국의 각 도시에서는

여성의 길드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업 여성은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 것만  
 으로서 공동길드에 가입했다. 한편 여기에는 '아가씨의 길드'이라 불리는 유곽에서 창  
 길드로 구성하고 있었다. 여직원은 당시 도시의 생산적, 정치적문제의 결정에 남자와 동  
 하게 참여했으며 임금을 스스로 차별할 권리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소병형 생산양식을 기반으로 농산 사서리 재산을 축적. 도시를 이루며 도시  
 형성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농지를 중요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개인적  
 사적 성취와 불완전 대외소유와의 모순으로서 생산양식의 발전에 따라 해체가 촉진  
 되어 분할지 소유를 거쳐 마침내 자본제적 대농업으로 전진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브르  
 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창출시켰고 불완전 가정과 다른 성취의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

즉 성공한 수공업자의 계층분화된 임노동자의 고용으로 그의 사업은 번창되고 그의 작업장은  
 집으로 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또 작업장이 커지매 따라 아내 노동은 필요  
 없게 되고 이제 가정은 생산과는 분리된 소비의 장이며 생활할 공간으로서의 거주하기  
 만하는 장소가 된다.

## 라. 자본제 생산양식과 여성

생산의 기능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성취 역할 분담에  
 위해 가정내에서는 무보수 가사 노동자로 기능하며, 이러한 여성의 1차적 기능 때문에 여성이  
 다시 생활활동에 참가한다해도 저임금 노동자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그들이 언젠가는 남성  
 에게 부양된다는 가정하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된다.

이러한 여성의 차별적 저임금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적 부담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고,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계급사회의 조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사회의 새로운 단계인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맞게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며 가정의 기능 역시 재편성 되어 생산양식에 조응한 경제단위로서 생산집벌제  
 에서 소비집벌제로 변화하고 계급관계의 재생산 기능 즉 가족을 통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즉 계급사회의 두가지 이데올로기인 성차별,  
 계급차별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족은 각 계급별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그속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어떠한가에

대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노동자 세대의 개별적 특성은 어떠한 생산수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노동이 생계의 유일한 기조라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 세대의 여성은 남편이 임노동자의 역할을 함에 따라, 성직 노동분업에 의해 사회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과 육아로서 노동력·노동자의 재생산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저임금만으로 생활하기 곤란 할 때, 여성은 남편의 반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된다. 여성이 스스로 사회적 생산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녀 스스로의 물질적·사회적 독립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세대의 여성은 이러한 물질적·사회적 독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저임금 때문에 경제적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본가세대는 세대재생산을 위한 수입의 원천을 자본에 의한 아원 즉, 그가 고용한 노동자의 잉여가치로 하는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의 아내는 브르조아지의 규정적 특장인 생산수단을 보전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다만 브르조아지의 명예회원으로 있다. 그리고 브르조아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브르조아지가 소유한 생산수단을 상속할 적자를 낳는다는 것이며, 이때문에 어느 계급의 아내보다 여학생 동지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세대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셋대수업의 성체이며, 둘째 노동자세대가 단지 소비·재생산의 단위임에 비해 이 세대는 가족노동을 행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족 생활의 단위임과 동시에 생산 활동의 단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과 가계, 작업장과 주가는 많은 경우 미분화 되어 있다. 이세대의 경우 봉건적 가정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여기서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임과 동시에 남편과 공동상품 생산자 또는 기업수행자인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의 아원 추구 노력에 의한 여성 임노동자의 출현과 그것이 전체 임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산업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속에서 급속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계화에 의해 단순 노동분야가 확대되고 자본은 아원증대를 위해 단순노동에 적합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즉 저임금 노동력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원증대의 가장 빠른 길이며 노동집약적 단순노동 분야에 있어서 자본의 노동력 수요는 저임금 노동력, 즉 여성 노동에 집중된다. 이리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게 되고 자본주의는 가속화되며 신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자본순환은 다시 단순노동 분야의 확대를 강화한다.



한편 여성 임노동의 공급의 축소를 살펴보면, 자본의 상품생산의 일환으로 가사노동의 일부를 자립화사업으로서 가사노동의 경감과 그에 반하는 상품에 대한 추가수요가 생김으로 인해, 노동자(남편)의 저임금으로는 생활을 극히 불안정한 것이 되며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비 상승 때문에 아내가 딸이 산업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고용되는 길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여성 임노동자의 출현이 산업세바의 특수형태를 이루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

기혼여성은 언제나 무형의 실업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가정내의 역할이라는 여성의 특수한 역할은 여성이 실제로 고용되었을 때의 임금을 부수입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렇게 여성의 임금이 노동력 가치 이하로 지불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산업세바군으로서의 여성이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심각한 압박을 형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산업세바군의 유동적·잠재적, 잠재적 범주에 속하면서도 그녀의 생존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고, 가정내에서 노동의 성적 분업으로 인해 그녀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여겨지 때문에 산업세바군의 특수한 요소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저임금을 초래하고, 이렇게 노동력 가치 이하로 지불되는 여성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의 이러한 요구로 인해서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아내의 저임금이 노동자 계급의 일반적 현상으로 타자 노동자가 받는 두가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된 가족관계이고 둘째는 아내의 몸팔이이다.

여기서 아내의 몸팔이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노동자의 인본적 가치와 생산수단으로 부리의 자유가 브로조아적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냉혹한 경제적 강제인데 대응해서 이 여성의 몸팔이 즉 매춘도 자본주의가 무산계급 여성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성적강제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제3세계에서는 국내기업과 전혀 관련을 갖고 있지 않고 외국자본에 의해 이식된 공업화와 대외의존적 차관 경제는 국제수지의 적자를 가져오게 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사업이라는 미명하에는 매춘 관광을 허용, 조장한다.

우리나라의 매춘 수준은 1993년 방일 여행중 동경의 히로 학원을 방문한 모장관은

동유럽 이사회에 행한 연설문에서 "한국 여성은 경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몸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가생, 호스티스가 대거 일본에 진출해서 몸을 바치고 밤낮으로 분투하는 애급 증상은 훌륭한 것이다"라고 책머의 찬사를 보냈다. 라는 태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여희 측면에서 보다면 매춘의 원인은 빈곤이며 제3세계 국가 자본주의는 이러한 열악한 상태를 외화획득을 위해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각 세대별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에 의한 계급적 착취와 함께 성의 착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이중적 착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속에서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이상의 서술은 미흡하고 연구의 불충분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담지 못했으므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경제적·성적 침략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하리라.

# 여성 해방 이론에 대한 고찰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 하게 되면서, 여성 역할의 기원과 여성 해방에 대한 방법론이 다양한 입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여성 문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 했는지, 기존의 서구 제 여성 해방 이론을 통해 검토하여 본다.

## 가.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

중세의 구체제를 변혁하려는 근대시민의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계약이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여성해방에 대한 자유주의 관심은 17C 후반에 나타난다. 이 이론은 단적으로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자들의 창정권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는 이 이론 자체가 여성해방에 대한 관심을 가장 먼저 제기할수 있었던 부르주아지 여성들로 부터 출발하였고 궁극적 목적이 창정권의 획득이라는 데서 기인 한다. 즉,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여성역할의 원인을 '기회 부족'으로 이야기 한다. 여성의 법적, 교육적 권리와 기회가 남성과 불평등하기 때문에 여성 억압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 이론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자유주의적 해방이론은 여성문제에 대한 최초의 이론 제시로서 이후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기반을 조성해 주었고 또한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오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기회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함으로써 그 한계점을 보였다. 즉, 사회적 조건이 평등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여성의 태어나 사생활 과정은 겪으면서 부터 남성과는 다른 조건하에 놓여지며 이런 상황하에서는 기회 균등은 아무런 해결 단서가 될수 없다. 여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통한 역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데서 자유주의적 여성해방이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는 사회구조 분석에 실패했다고 볼수 있다.

## 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이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은 여성역할의 가원을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계급사회의 출발로 부터 본다. 즉, 여성의 역할은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 계급이 탄생하면서 생산수단은 남성의 전유물이 된 것이라 보았다. 그리하여 여성 역할은 사유재산제에 기초하는 계급사회의 고유한 역할형태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여성해방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성취함으로써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 이론은 여성 역할의 근원에 있어 왜 그런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되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인간 소외를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찾고자 한 데서 여성 문제를 사회 문제의 한 유형으로서 관련시켜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계급적인 면이 아닌 여성에 대한 성적인 역할의 측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된다. 즉, 여성역할에 문제는 여성이 경제권이 없는 데서 받는 계급적 역할만이 아니라 경제구조와는 비례적 독립적인 부분으로서 각용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계급소멸에 의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계급이 철폐된 사회에서조차도 여성에 대한 성적 역할을 철폐하기 위한 끊임없는 의식개조 혁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급진적 여성해방이론.

전통적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대해 급진적 여성운동가들은 왜 여성문제만이 어떤 사회변혁 하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로 남아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 역할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성해방은 성에 관한 사회관념을 폐지하거나 또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자체 즉 출산과 육아를 없애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산기구의 장악, 예를 들면 인공 수정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급진적 여성해방론은 여성문제에 있어서의 성적역할 분화등 성적 역할의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성적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립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으나, 생물학적 차이는 단순한 차이일 뿐 그 자체 만으로는 어떠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생물학적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생명 생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흡진적 여성 해방론은 여성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고리인 생산관계의 변혁과 그 해결의 결과인 생물학적 차이의 점진적인 극복을 혼동하는데에 있다.

## 다. 사회주의 여성 해방 이론.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은 적대적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모순을 사적 소유에 의해 동시에 창출된 계급차별과 성차별의 복합적 모순으로 보고 이에 임각해서 성차별의 본질을 파악한다. 즉 성차별의 본질은 성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자연적 내적 모순이 사유재산 제도라는 강력한 외적 모순에 의해 성의 사회적 차별로 전환된 것이며, 계급 차별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성차별과 계급 차별은 사유재산 제도에 의해 생성된 쌍생아이며 사적 소유 단계의 각 생산 양식마다 불가분적 연관 관계 속에서 창출되는 복합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 계급의 남성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 계급의 남성에게 의해서도 행해지는 성차별을 지배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의 통념을 좌우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하며 이것은 가능하게 하는 즉, 양성 관계를 유지 시키는 조직으로서 가부장적 가족의 재생을 설명하고, 국가는 계급 관계를 유지 시키기 위한 조직 즉, 계급 사회가 산출한 계급 모순의 비화해성의 산물이며 지배 계급의 경제적 기초를 보호 강화하는 계급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이론에서는 계급 모순의 타파로 인한 계급 해방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성차별 모순의 타파로 여성 해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의 연구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서는 충족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성역할의 제거, 24시간 개방된 탁아소 시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들의 관리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은 강력한 여성 운동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 지배 집단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

이해방론은 체제내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남성의 지배나 혹은 한 집단에 대한 다른 집단의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제 내에서의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은 광범위한 혁명적 상황 안에서 여성해방이론을 이해하는 전과를 가져 왔다.



• 철학과 여성학의 「나는 나」  
우선 「나는 나」 모임의 이름부터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나는」  
독일의 "유디트 야베르그"라는 여성의 체험을 다룬 「나는 나」라는 책에서 빌어  
왔다.

한 여성이 자기 식으로 주체적으로 나아가던 생활에서 결혼에서 오는 남편과의  
사이. 즉 그것은 가족이라는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존재성이나  
대응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자기의 불합리(여름 들면 인도라든가 아내가타)를 주입  
시키는 데서 여성이 자기의 길을 찾아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학 study 구성원은 주체적으로 서로다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라는  
뜻을 담아 모임 이름을 「나는 나」라고 정했다.

처음 「나는 나」를 생각했던 것은 철학과 내의 몇 안되는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생활에서 여학생에게 내려오는 행사가 없어서 우리 여학생  
들을 하나로 묶는 힘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여학생을 하나로 만드는  
행사는 식당에서 배빙법 한 그릇에 몇 병의 음료를 두고 서툰 애기를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을 적극적으로 바꿀거고 사회문제나 격리되지 않은  
여성모임이 더욱 풍요로운 생활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우리의 타고난 특  
으로 모든 과정을 '여성'에서부터 시작하자 라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어  
「나는 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세련된 기술이었는데, 그때부터 여성학의 건설모임이 준비되기  
시작한 후 몇몇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 해도 학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하는 몇 안되는 여학생에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전하거나, study 경험 등에 대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몹시 힘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까지 뛰어다녔느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며 태어난 「나는 나」는 88년 2월부터 study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참가하리라고 냉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모임의 취지를 대다수로 학과에 알입으로써 사람을 늘려나가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처음엔 86학번 여학생 6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은 88학번, 89학번, 89학번까지 모두 적합한 인원이 18명으로 늘어났다.

철학과 내에선 '저가 모립사회를 공꾸는 집단 아이가?' 라는 네명 거립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study와 대번 study가 끝날 때마다 간략하게 내용정리한 대다수로 '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저런 현실이구나', '필요한 study'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함으로써 남의 공리 인정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

모임 운영의 냉식은 구성된 모두가 정해진 책이나 자료로 철저한 준비로 각자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어 그것을 자신의 study 내용으로 정한다. 그래서 다음토론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study를 하면 흔히 책의 내용에만 얽매는 경우가 허다한데, 나는 나,에서는 여성문제를 멀리서 훑어내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의 생활에서 내 위치, 나의 문제를 책의 내용, 토론 주제나 연구사제에 연계함으로써 구성된 모두의 얘기와 문제를 알게 됨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 의식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study 내용이고 방식이다.

이것이 「나는 나」를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고, 한 번 읽으면 접어두면 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알지 못했던 우리만의 비밀이었다.

그동안 「나는 나」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엔 구성된 모두의 문제 인식을 피클에서 훑아낸다. 파클은 단행본을 흑면에서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우리의 문제를 훑어낼 수 있다면 어렵게 읽기 때문이다. 책은 「나는 나」 백양사의 「서 있는 여자, 헌정모의 고비」등 이었다.

그 다음은 여성 문제를 간략하게 서술해 놓은 「미혼의 당신에게」를 보았다.

이 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성 다움과 남성 다움의 이데올로기'를 깨어 수 있었고, 또 일하는 여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 공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참조하면서 노동여성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법 조항 만큼도 실현되지 않는 취업 여성은 정말 현실에 살고 있다.

그 다음은 이때까지의 여성운동이 어떤 문제들로 바뀌었으며, 어떤 이론들이 근거로 되어왔는가를 알기위해 「여성해방 방향의 흐름」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크게 ① 프랑코 혁명기의 거두주의 여성해방론 ② 공산주의 여성해방론 ③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살펴보았으며 60년대 한국상황에서 필요한 여성운동은 어떠한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거주화와 여성'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면서 '광주학생 농성비리'를 검토한. 이주가 귀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분당시대의 여성현실」을 얘기하면서 고공이 부러놓은 AIDS에 대해 토론하며, 이땅의 여성수탈사, 즉 일제에 의한 정년대에서 현대에 기생관광객수출, AIDS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듣기에도 쉽지 않고 입원해 버리고 남은 여성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대동제' 기간의 다주강좌에서 영화에 나타난 대공권 여성상을 준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여성, 도내빈민여성, 매춘여성에 대한 토론과 서로의 연애관을 얘기했으며 출판성고, 대담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때까지 말한 것처럼 「나는 나」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나는 나」 구성원에게 던지는 문제는 무엇이든 라면 내가 알고 있는

대변과 고개를 현실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친구들을 모아 단합된 힘으로 너무나 단정하게 풀어져 있는 벽을 뚫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진정한 여성회방 운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인 여성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이라 믿는다.

아제 경제안에서도 많은 여성학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여성학 study에 참여해야 하고 기존의 여성학 study도 꾸준히 계승되어야 한다.

여성학은 사회과학적 인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생운동 하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건 아니잖.

대신 한번 "여성학"은 구체적으로 서로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 일을 얘기해야 합니다.

• 인문대 여성학 연구모임.

인문대에서 처음으로 '여성학 연구모임'이 제기되었던 것은 1986년 5월 인문대 여학생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였고, 사실상의 모임을 1987년 가을부터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정규모임을 갖고 있다.

'여성학 연구모임' - 이하 '여학'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86학번 3명, 87학번 4명, 88학번 3명 등 총 9명이고, 때때로 관심있는 학우들의 협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인간이면서도 남자, 여자라는 이유로 각기 다르게 길러지면서, 사회에서의 기대치도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회전반에서 여성은 차별받고 귀찮아지며 많은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여론의 부분과 다르게 '대학'이라는 곳은 그래도 좋은 밑거름을 남자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함께 살아가며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여성의 성취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깝게 과거에 여학생들의 행동이 전은 데서 비롯하여 남학생에 비해 남초동기 행동력 등이 뒷떨어지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때때로 전은하는 것이 여학생들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억압받는 것은 과연 무엇때문이며 그런 모습이 우리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고, 보다 적극적인이고 구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되는 여성이 되기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틀로서 '여학'이 제기되었다.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해 내는 여학생회란 조직이 인문대에도 있지만, 도서대출 · 강연회 · 문예제출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여학생 대중들과 긴밀해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회가 내외 단결이라는 긴밀감을 넘겨주지 못함은 현실이다.



여성인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떠한고 어떻게 변화해가야 하는지를 연구할 '여연'을 여성생들의 관심속에 이루어내어 여성생리를 즐겁히 세 위를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게 위해서도 '여연'은 절실한 것이었다.

참여하는 많은 우리 인원이 과 학회에 포함되어 있는 등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함으로써 '여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성학이란 것이 생도함과 연구자로서나 저서된 거리할림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 갈망 심했던 적도 없지 않았다. 여태까지 여연이 절실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고 볼 수는 없다. 드러나는 여성문제가 대분리 사변형이고 때론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 과학적인 연구를 함고리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여연'에서는 주제를 두로 토론하거나 미리 책을 정해서 읽고 토론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미혼의 당신에게 - 대사가 미찌코 작

여성의 각종 미혼 여성들은 사랑을 풍부하게 가꾸기 위해 무언을 배우고, 무언을 대처하고, 무언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토론.

• 나는 나 - 유미진 양혜리 작

밖에서는 능력있는 남성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대해서도 폭군이다, 아이들에게는 전혀 금주적인 남성은 그리로 많다. 약한자는 아내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립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가장 잘 그려질 것 같다.

• 아름다운 사랑 사랑은 구하여 - 백성 편정복

여성들에게 전반에 대한 대교와 바람직한 여성상의 태도, 절실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토론이 진행됨.

◦ 세계여성사 — 백남.

여성문제가 과학성을 향기위해 여성이 묘수나 사회적인 묘수를 어떻게 반영 또는 은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확실한 시각이 필요하다. 유럽사회로부터 현재 사회주의 공산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삶과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경제적 검토를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을 논할 것.

◦ 근비 — 송정모

매춘과 유락은 재봉적인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에서 일제시대 깊은 한류관계에 놓여있다. 다만 맹목한 기독교에서 각인된 민족의식으로, 미풍과 한류, 그 협력과 여성의 내면 역사를 돌아보는 저서의 고통스런 다면적 담해를 밝혀두는 것.

- 난디노의 딸들.

나라나구아의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해 소모나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자유로운 나라나구아를 건설하기 위해 바운 여성들의 체험담으로 기록된 책. 투쟁을 위한 혁명 투쟁에서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속에서 어떤 변화나 발전을 경험하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해방의 과정에서 여성의 가치는 민중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준다.

◦ 여성해방 투쟁의 흐름

'여성해방'이란 검토 결론 그 시대, 사회나 무관하지 않고, 각 시기를 통해 전개된 투쟁들을 보여준다. 여성해방에 대한 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해방의 현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여역' 도입이 때론 흥분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투쟁이 그쳐버릴 때도 있고, 투쟁적이고 투쟁의식만 배양할 것을 빌려먹어도 그에 걸맞은 여성의 권리를 함께 배워야만 할 때 날벼락치며 안타까운 한 점도 많다. 이제부터 '여역'은 좀 더 단결을 갖고 공부하고

항상처럼 생각해야겠다. 주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남자를 강요할수록 남수적이고 동등적인 여성이 등을 깨고 주어진 길에 나가는데 걸림 없이 남지만, 우리 여성들 중에서는 강박관이 자신의 뜻으로 누구 하나 강요함으로써 제역할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바로 여성이 절반을 발휘하는 것이 될 것이며, 사회역사의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여성에게 이전에 한 양보로서 우리의 뜻을 다양히 해석시켜서 여대 남성들에게 우리의 뜻까지 과도하게 얽혀있던 점을 좀 내려주고, 함께 어깨걸고 나갈수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혹은 미래에 사랑할 남성들보다 보다 인간적으로 대우받게 되며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운동에의 해결책을 얻어 고개라는 우리로서는 보다 어우러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보다바람직한 남녀관계를 가꾸어 갈 책임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노임에 책임을 갖고 노력하고자 한다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대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계속 알려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 밖에,

수많은 남친계획도 세부적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모임이 되고자하는 노선도 하고 있다. 또 결국 학내상황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해 노동여성, 농민여성, 빈민여성, 공학여성 등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접근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선이나 연대의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입회원들과 함께 '여연'의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과거에도 꼭꼭 여성학회가 존재했음을 바라며, 몇개의 모임이 인문대 여성생리 등을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 • 인문대 여학생회 운영위 하심.

각 과 여학생회장님들로 구성된 인문대 여학생회 운영위에서는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다. (11개과중에서 6개과 여학생회장님이 함께 하고 있음)  
3월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여학생회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과여학우들을 묶어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운영위특기서 먼저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성과물로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과 특기서 실현시켜 내야 한다고 결의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학습을 시작, 매주 월요일 이후 6시에 모임을 갖고 있으나 과에서 일을 처리는 변동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 모임에선 특별 「교비」를 입고 분담과 외세나 여성에 대해 토론하고 여성운동의 내정향상에 대해 논의 했으며, 두번째 모임에서는 「미혼의 청년에게」를 공부했다.

학습을 하면서 점차 여성학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과에서의 여성학회 건설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있다.

인문대 여학생회의 사업이 곧 각과 여학생들로 이어져야 하고 중도자로서의 중화성을 생각할 때 과여학생회장님들이 여성학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 것은 각 과나 단대 여학생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 • 기타 각과 상황.

• 상문과 - 3월중 여성학회 건설하려고 함.

• 고고인류학과 - 편입부 내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며 빈민 타아도 연계등을 고려하고 있다.

• 노어노문과 - 지금 '바둑'란 이름으로 학습을 단점중이며 단대 여학에너 지원이 계획 중이다.

# 여성을 위한 노래

· 딸들아 일어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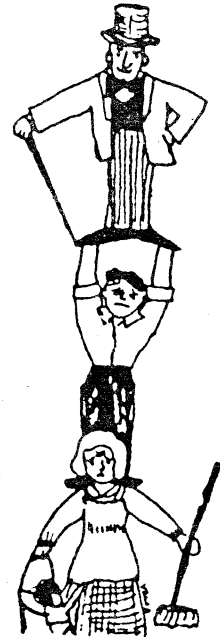
1. 어두웠던 밤이나 새벽이  
 일어날은 땅 녹아 새벽이  
 래래묵은 낡은 틀 밖쪽 털라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나  
 이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사랑도 햇빛도 다 빼앗아 버리고  
 참아왔던 그 세월 몇몇해

2. 우리는 이땅의 노동자  
 여자의 주인인 노동자  
 더 이상 내랑결에 흔들릴 수는 없다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나  
 이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고귀한 딸정신을 다 빼앗아 버리고  
 참아왔던 그 세월 몇몇해

<후렴> 내자 깨부수자 엉라별 노동조합  
 무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 영귀귀야 ·

1. 영귀귀야	영귀귀야	혈혈땅야	영귀귀야
남리통에	네방이고	흘로 나는	영귀귀야
2. 갈퀴통에	호미잡고	대리에	투근쓰고
공방머리	뚜저앉아	부르네	임의이름
3. 영귀귀야	영귀귀야	한탄강변	영귀귀야
나를 두고	어디 갔도	뚱국도리	목이대네.



· 뜨거운 가슴통

그같은 억압의 늪에서 대개 일어난 사람들  
 의태대는 다윈의 목도리 뜨거운 가슴통  
 죽음으로 뒤받혀 목숨일 수는 없다  
 늪으로 더럽혀진 순결일 수는 없다  
 늪까지 달고 가자. 브러까지 달고 가자  
 고질 배반의 정도리 울릴 때까지 -33-

참된 여성해방 운동은 남성에 대한 형식적 평등을 획득해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득차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해결 하고 참된 민주화를 이룩해 내는 민족민주운동  
 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 편지를 마치면서.

- 드디어 해방이다. 여석이 한때와 연옥이 마지막의 이양과 청취의 쿵에서 이제야 벗어났도다. 그러나, 찰찰하다. ~~~~~ 뽕.
- 머리 맞대고 종알 웅얼 거리면서 한 작업들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나오다니 기쁘다. 그런데 팔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 끝났다. 히.
- 조흔은 예쁘게 조흔은 화려하게 그러나, 더 많은 눈욕으로 단장된 우리의 모순은 깨달자. - 모든 대학생들에게 - 영.

여성해방이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인간이다" 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여성자신을 포함한 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는 일이며 이것은 바로 인권의사의 진보발전에서 남녀의 성구별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인간해방이며 진정한 인간의 해방은 자기 스스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그 해방을 온 인류와 함께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